

# 공명하는 두 세계

March 2025 | 홍수정 에디터

## 공명하는 두 세계

3월, 두 명의 국내 여성 작가 강명희, 최재은의 개인전이 개최된다. 자연에서 출발해 펼쳐낸 두 사람의 예술적 여정은 어딘가 서로 공명하는 듯도 보인다.

모든 것이 생동하는 봄. 올해 첫 전시 주자로 나서 두 예술 공간의 문을 활짝 여는 이들이 있다.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3월 4일부터 6월 8일까지 열리는 강명희의 개인전 〈강명희 - 방문 Visit〉은 5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제갤러리에서 열리는 최재은의 개인전 〈자연국가〉다. 자연을 재료 삼아 각기 다른 예술적 표현을 내놓는 두 작가의 세계를 들여다 보면, 닮은 듯 다른 두 여성의 인내가 보인다.

자연이 빚어낸 절경을 보고 '한 쪽의 그림' 같다고 말할 때, 속으로 화가 강명희의 그림을 떠올린다. 한국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1972년 프랑스로 향할 그는 1986년 파리 퐁피두센터에서 최초로 전시를 연 한국 여성 작가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그 후

작가는 사막을 찾아 몽골로, 세종과학기지가 있는 남극으로 떠나는 등 세계 곳곳을 누비며 자연의 본질을 탐구한 회화 작품을 선보였다. 강명희가 그리는 자연에 유독 마음이 통하는 까닭은, 작가 스스로 땅을 밟고 들소 노닐 것들을 화폭에 담기 때문이다.

작년 5월, 홍콩에서 열린 〈자연의 재탄생〉 두 번째 전시를 앞두고 작가는 말한다. "나는 붓을 잡고 있었고, 바깥이 불었고, 그러다 붓이 움직였다. 그래서 바깥과 함께 그림을 그렸다." 풍광을 담으려다 보니 커진 압도적인 시야에도 한뼘했다. 한 예시로 이번 전시에 포함된 복원(2002~10)은 가로 폭이 무려 5m가 넘는 대작이다. 2000년대 고공으로 돌이온 작가는 제주에 터를 잡고 그곳에서 묵하던 장면을 특유의 유려한 붓 터치로 그려냈다.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1960년대 초기작부터 제주에서 완성한 최신작까지 60



다른 하나는 대규모 국제 협업 프로젝트인 'DMZ 프로젝트'로, 비무장지대가 세계에 보인 지역이라는 점에서 출발해 자연을 복원하는 데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는 시리즈다. 특히 DMZ 공중정원을 모형으로 구현한 '봄의 정원'은 2016년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 본전시외의 땅을 밟기도 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 프로젝트에서 발전한 '자연국가' 시리즈를 선보일 예정. 작가가 직접 제작한 DMZ 생태 현황 분석도를

1. 강명희 '시공물리에 살면서(2018~19)'.  
2. 최재은 '자연국가-Nature Rules(2025)'.  
3. 강명희 '복원(2002~10)'.

여년에 걸쳐 작가가 직접 탐과 호응한 작품을 망라할 예정. 웅장한 크기의 작품 사이를 거닐 때면, 자연 속에서 살아 숨 쉬는 듯한 느낌을 받을 테다. 강명희가 프랑스로 건너가 자연을 캔버스에 담는 시도를 했다던 최재은은 1976년 일본으로 향해 조각, 설치, 건축 등 매체를 한정 짓지 않고 생명의 근원을 탐구했다. 자연을 주요 소재로 다학제적 작업을 펼치는 작가의 대표작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1986년에 시작한 '월드 언더그라운드 프로젝트'로, 각 대륙의 땅에 직접 제작한 중이를 묻은 뒤 토양과의 상호작용을 지켜본 기록의 신물이다.

기본으로 지역 삼림을 복원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과정을 소개한다. 최재은은 지난 50년간 생태계에 대한 고민을 작업으로 순화하며, 이 모든 것들이 '자신 이 해에만 하는 일'이라고 받아들이 듯하다. 작품 곳곳에 허풍이 깔리고 피피되는 생태의 심각성을 자신의 언어로 전달하려는 노력이라 쓰여 있다. 한편, 최재은의 세계는 12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또 한 번 펼쳐진다. 회고전 형태의 전시는 내년 3월 29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3월은 또한 공통분모를 지닌 두 작가의 전시로 풍요로운 봄날이 될 듯하다.

에디터 | 홍수정갤러리 에디터

PHOTO: CHANGMIN LEE/STUDIO LINTREX/AS, MYONGJAE HANG, LINA IN SEONGHONGDONG-2, 2019-19, OIL ON CANVAS, 28x5, 500x4, MYONGJAE HANG, NORTH GARDEN, 2002-10, OIL ON CANVAS, 46x7, 526x4, JAEJUN CHOI, NATURE RULES, 2025, SILK, COTTON LINDEN AND WASH PINK, 160x100CM, COURTESY OF THE ARTIST. PHOTO BY YUSUKOH CHOI/ANNA. IMAGE PROVIDED BY PALACE GALLERY/981111-11-11



## 허겁에 내려앉은 봄

순수한 포도는 자라서 다양한 향을 지닌 내추럴 와인이 된다. 싱그러움 과일 향을 한껏 머금은 네 병.

1. 마세라치오 2022, 발바방 프랑스 알자스 지역에 자리한 와인사이에 친구들의 와인(Vin Des Potes)이라는 이름처럼 포도를 재배하기 시작했다. 영동하게 빛나는 오렌지색 와인을 따서마시 마음 나오는 것은 리치의 장미 향. 한 오렌지 마시면 달콤한 상구 과즙이 입안 가득 채운다. 매콤한 요리와 곁들여보길 추천한다.
2. 통 데 보뜨 블롬 2023, 부페이 프랑스어로 작명하면 친구들의 와인(Vin Des Potes)이라는 이름처럼 소블리에 두오 바티크 요안이 이끄는 와인이다. 프랑스 본 지방에서 난 백포도 품종인 클레레과 그르나슈를 블랑, 비오나메를 블랑했다. 북송'을 한 링 크게 베어 얹 듯한 첫 무렵 무에는 꽃과 풀이 가득한 봄 내음이 뒤따른다.
3. 위 둘라 수와르 로제 2022, ORW 미국 뉴저시 출신의 와인 제이 '브렛 드와이시'는 알타주는 핑크 록 가를신 증식을 떠올리게 만든다. 프랑스 남부 바늘스 지역의 협동조합 와인사-리 '9 caves'의 수장이기도 한 마누엘은 포도를 철저히 익히는 전통 방식으로 와인을 생산한다. 수확전으로 만든 보름은 소성 가치를 높인다.
4. 비-이 데 라 루카 알타오, 비노스앤 블루베리를 한 줄줄 으깬 증을 따시는 듯 북산한 제스-와인. 때때로 육류나 기름진 증식을 떠올리게 만든다. 프랑스 남부 바늘스 지역의 협동조합 와인사-리 '9 caves'의 수장이기도 한 마누엘은 포도를 철저히 익히는 전통 방식으로 와인을 생산한다. 수확전으로 만든 보름은 소성 가치를 높인다.

에디터 | 홍수정갤러리 에디터